

<b>2026년 7월, 출범 확정</b> <b>제물포구·영종구</b> <b>서구·검단구</b>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자	2024년 2월 14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홍보기획관	담 당 자	• 브랜드전략팀장 이상숙 ☎440-3081 • 담 당 자 남지우 ☎440-308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cm 연필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인천을 느껴 보세요**  
**- 국내 최초로 연필의 역사를 담은 ‘연필뮤지엄’ 에서 14일부터 전시 -**

인천광역시는 2월 14일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연필뮤지엄에 인천 도시브랜드 연필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연필뮤지엄은 국내 최초의 연필박물관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3천여 종의 연필이 나라별, 콘셉트별로 전시돼 있다.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BMW, 까르띠에,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필과 함께 인천시 연필이 전시되는데, 약 19cm의 가는 연필 한 자루에 새겨진 브랜드의 정체성을 비교하며 볼 수 있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의미의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인천의 정신’을 상징하는 사선모양, 인천의 하늘과 바다를 담은 색상이 어우러져 인천의 가치를 담아냈다.

인천시는 연필뮤지엄에 인천 도시브랜드 연필을 전시함해 방문객에게

인천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정상급 브랜드와 함께 전시돼 인천의 위상을 드높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이와 연필보다 전자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연필의 사각사각 소리와 특유의 감촉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천의 도시드랜드를 알리고 일상적으로 느껴졌던 물건에 담긴 브랜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e음 어플(인천e몰-인천직구-기타-인천관광상품)을 통해 연필 뿐만 아니라 인천 상징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홍보기획관실(☎032-440-3084)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사진>

